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제양규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교수)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풀어 주셨지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다(요 8:11).

1. 개헌을 통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시도

국회는 2017년 1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7월까지 20차례에 가까운 회의를 통하여 헌법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지난 6월 개

헌특위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깜짝 놀란 것이 헌법 개정안 속에는 동성애는 물론 동성혼조차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헌법 제11조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동성애)을 넣거나 끝에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성적 지향 등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제36조에 나와 있는 [양성 평등]을

삭제하고 대신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는 것에 이의 없이 합의하였다.

[양성 평등]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 평등]은 다양한 성적 정체성간의 평등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가 법제처에 의뢰하여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 평등]은 주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를 위한 내용으로서 [여성 권익보호]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특히 신설하려고 하는 [성 평등] 항목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 소수자의 평등을 위한 것으로서 다양한 결합과 관계가 합법화되는 것이다. [성 평등] 항목이 신설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당연히 합법화되는 것이다.

만약 헌법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되고, 교육현장에서 동성애는 의무 교육이 되고, 가정과 가족, 문화와 사회 구조가 바뀌게 된다. 그리고 교회에도 엄청난 변화가 다가 오게 된다.

2.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교수 성명서

적어도 헌법에서만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국 교수들의 단호한 마음이 모여

현재까지 264개 대학 2,618명의 교수들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8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성명서 발표와 함께 개헌특위 위원장, 제1소위원회 위원장, 각당 대표 및 간사 등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의 부당함을 항의하였다. 특히 국민여론조사에서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양성 평등]을 없애고 [성 평등]을 신설하겠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였다. [성 평등]과 여성 권익보호와는 상관이 없고, 진정으로 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양성

평등]을 기초해야 함을 알렸다.

이와 함께 8월 10일부터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8월 17일까지 교수들은 단식과 함께 국회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부산대 길원평교수는 콩팥까지 절제한 간암환자로서 무리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1인 시위를 주도하였다. 평소 한끼 금식도 어려운 제양규 교수는 또 8일간의 단식을 감행하였다.

3.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소위 동성애 지지자들의 인권프레임이다. 맞는 이야기이다.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된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동성애 행위는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동성애는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 일반인들은 물론 기독교인조차 그들의 허구적 논리에 넘어가고 있다.

사회적 폐해를 주는 흡연을 반대한다고 해서 흡연자를 차별한다거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는다. 동성애, 특히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통로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이 폭발적인 이유는 남성 동성애 때문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동성애는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미치며, 건강한 가정과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로 인하여 먼저 자신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폐해를 받고 있다.

선천적이지도 않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차별이 아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동성애는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또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동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자유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는 없다. 모든 자유에는 제한과 절제가 있다. “남자들도..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 하매”(롬1:27)처럼 동성애는 무절제한 성적욕망에 비롯된 것이다. 이미 3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1번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다. 무절제한 성적욕망과 부도덕한 성적만족을 위한 동성애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아니다.

4. 고난 받는 믿음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허용 방임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은 백주 대낮에 광장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다. 방송이나 드라마에서는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서구의 다른 나라처럼 동성애 행위로 인해 처벌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도 그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제 거꾸로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한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려면 엄청난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가 건강한 사회에 큰 폐해를 주기 때문이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만약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가정과 가족, 문화와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동성애자들의 허구적 주장에 져서 성경은 물론 양심조차 입 다물고 있다면 온갖 폐해와 함께 고난 받을 다음 차세대에게 어떻게 답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전국의 2,618여명 교수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의 문제이기 이전에 신앙적 양심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과 며칠 사이에 국회 개헌특위 활동보고서 [헌법개정 주요 의제]에서 [성 평등]이 [양성 평등]으로 바뀌었다. 8월말부터 9월말 사이에 전국 11개 지역에서 국민대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더욱 치열해진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히 여겨 주시기를 엿드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글 | 제양규

KAIST 기계공학 박사. 현재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의 교수로 있다. 한국기계연구원 회전기계진동연구실 실장, 머신나우(주) 대표이사, 엘트웰텍(주) 대표이사 및 그룹총괄 전무, LeTourneur 대학 방문교수 등을 거쳤다.